

“고흥 구석구석 여행하며 ‘반전 매력’ 즐겨요”



군,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관광지 2곳 방문·10만원 이상 소비...반값 환급

고흥군이 고흥지역의 다채로운 매력을 기반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6일 고흥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6 지역사랑 휴가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고흥군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사업 참가 신청을 받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관광객의 여행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 순천시, 여수시, 보성군 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관광객

이다. 참여 희망자는 고흥관광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승인을 받은 후 고흥을 방문해 여행을 즐기고, 여행 종료 후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고흥 내 음식점, 카페·디저트, 숙박시설, 체험시설 등에서 모바일 고흥사랑상품권(QR·카드 결제)으로 소비한 금액의 50%를 다시 모바일 고흥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지원 조건은 고흥군 내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및 인증 사진 제출, 고흥군 내 10

만원 이상 소비 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1인 관광객은 최대 10만원(20만원 소비 시),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원(40만원 소비 시)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가족 단위 특별지원(5인 기준 최대 50만원)과 청년층 환급을 상향(70% 적용, 최대 14만원) 등 파격적인 추가 혜택을 마련해 고흥 여행의 만족도를 높였다. 환급받은 모바일 고흥사랑상품권은 올해

12월까지 고흥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초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흥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이 가진 다채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실질적인 여행비 환급 혜택도 누리시길 바란다”며 “관광객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기본 좋은 반전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곡성, 안정적 수돗물 공급 총력

노후정수장 현대화·급수지역 확대

곡성군이 노후화된 곡성정수장을 새로 조성하고 유지관리 체계를 현대화하며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43년간 운영된 기존 곡성정수장의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곡성군은 2020년 환경부가 주관한 ‘노후정수장 정비 현대화 공모사업’에 신청해 최종 선정됐으며, 국비 85억원과 군비 90억원을 포함한 총 17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후 실시계획 용역과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2년간 집중 추진해 조기 완료했다. 신설된 곡성정수장은 곡성읍과 오곡면, 고달면 급수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핵심 시설이다. 하루 수돗물 생산능력은 4500t으로, 기존 정수장의 3500t보다 1000t 늘어나 상수도 공급능력이 한층 강화됐다. 군은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정수장은 부지면적 9885㎡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요 시설로는 착수정과 보통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가압장 등 정수시설과 소독시설, 관리동 등이 어했다. 특히 이번 도입된 완속여과 방식은 상수원수의 수질이 양호할 경우, 모래 여과와 소독 공정을 거쳐 수돗물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유지관리가 비교적 용이하고 약품 투입이 적어 경제성과 효율성을 함께 갖춘 정수처리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시설의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정수장 신설과 증설로 곡성읍, 오곡면, 고달면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은 물론, 앞으로 석곡면과 목사동면, 죽곡면 등 급수지역 확대에 따른 추가 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



곡성군이 노후화된 곡성정수장을 새로 조성하고 유지관리 체계를 현대화하며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사진제공=곡성군청

장흥,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돌입 치료·건강관리·돌봄 서비스 ‘한번에’

장흥군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된 통합돌봄지원법에 발맞춰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들이 가정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참여해 치료와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춘 진료 및 간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상자의 생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와 함께 지역 내 복지 자원과 연계한 추가 지원도 병행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관산 정의원과 보건소 협력형으로 사업 기반을 구축했으며, 올해는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장흥우리병원을 전담형 재택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운영하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주민들이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택의료 서비스 확대는 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변화다”며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환경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영수 기자 jms050311@



순천시는 최근 정원위케이센터에서 국립순천대학교, 조선대학교, 전남TP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성 개발부터 실증까지 이어지는 순천형 우주산업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낸다. 사진제공=순천시청

‘인공위성 개발’ 순천, 우주산업 기반 조성 속도

순천대-조선대-전남TP와 협약...우주기술 교류·사업 발굴

순천시가 인공위성 ‘순천 SAT’ 개발과 실증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정원위케이센터에서 국립순천대학교, 조선대학교, 전남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성 개발부터 실증까지 이어지는 순천형 우주산업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낸다. 협약에는 노관규 순천시장, 이병운 국립순천대학교 총장, 김준성 조선대학교 총장,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이 참

여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사업의 공동 추진을 넘어 향후 우주기술 교류와 신사업 발굴까지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기관별 역할분담도 구체화됐다. 협약을 통해 순천시는 사업을 총괄하고, 전남테크노파크는 기업 연계와 사업 운영을 맡으며, 순천대학교와 조선대학교는 위성 핵심기술 연구와 우주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한다. ‘순천 SAT’은 지난해 12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한 누리호 6차발사 부탑재위성으로 최종 선정되며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올랐다. ‘순천에서 조립되는 누리호 6호기에 순천시 최초의 인공위성을 함께 우주로 올린다’는 상징성은 물론, 탑재비용 면제와 항우연 지상국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초기 비용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위성운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구축된 협력기반을 바탕으로 순천 SAT 개발을 본격화

하는 한편,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지와 누리호 6호기 및 차세대발사체 제작·조립,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우주산업 생태계를 한 단계 확장에 나갈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은 이제 우주산업을 준비하는 단계를 넘어, 직접 만들고, 키우며, 판을 확장해가는 도시로 전환하고 있다”며 “순천 SAT는 지역대학과 기업의 기술력, 그리고 순천의 산업역량을 결집한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구례, 범씨 온탕소독·고품질 쌀 생산 지원

450여농가 현장 지도 강화

구례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범씨 온탕소독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읍면 농업인상담소 8개소에 온탕소독기를 설치하고, 5월 중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2011년부터 친환경 및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450여 농가, 60t 규모의 종자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 범씨는 미소독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독 과정을 거쳐

야 한다. 이를 통해 키타리병, 깨서무늬병, 도열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벼잎선충 등 종자 전염 병해를 예방하고, 미질 저하와 수량 감소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자가채종 범씨의 경우 우량종자를 선별한 뒤 온탕소독을 실시해야 발아율을 저하를 줄일 수 있다. 온탕소독은 정선된 종자를 5kg씩 그물망에 나눠 담아 60도의 물에 10분간 담근 후 다시 꺼내어 찬물에 충분히 식혀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때 소독 시간이 10분을 초과하면 종자가 손상되어 발아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례군 관계자는 “범씨 온탕소독은 주요 벼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필수과정이다”며 “현장 지도를 강화해 올바른 범씨소독 요령을 홍보해 농가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광양,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3곳 선정

광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3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이를 발굴·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공동체성·공공성·기업성·지역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신청 기업 모두가 최종 선정돼 신규 분야 ㈜남도상회와 ㈜노각나무하나, 재지정 분야 태인도부각 협동조합이 선정됐다. 신규 기업은 5000만원, 재지정 기업은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행안부형 마을기업으로서 각종 지원사업과 네

트워킹에도 참여하게 된다. 선정된 기업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생산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남도상회는 기념품 제작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각나무하나는 노각 식혜·수정과·생강청 등 가공식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태인도부각협동조합은 지역 주민과 함께 수제 김부각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여수, 시민안전보험 범위 확대 온열·한랭 질환 보장항목 추가

여수시는 6일부터 ‘여수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범위를 넓혀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일반상해 사망·휴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휴유장애, 골절수술비 등 29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 등 2개 항목이 추가돼 보다 폭넓은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의 국민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전국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항목에 포함될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상해보험이나 ‘여수시민자전거보험’, ‘영조물 배상공제’ 등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청구서류·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